

광주·전남 日여행 취소-불매 '확산'

정치·경제·교육·문화계 "여행 백지화·교류 중단"
"위약금 적지 않지만" 폐북 등 SNS 인증 잇따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 치졸한 경제 보복이라는 국민적 반발이 일면서 광주·전남에서도 일본여행 중단과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들끓어가고 있다.

24일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전남상인연합회는 25일 전남도청 앞에서 일본상품 판매중단과 불매운동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메이드인재팬'이나 일본에 본사를 둔 기업체들의 제품은 "사지도, 팔지도 말자"는 운동이다.

전남상인연합회 소속 전통시장은 67개로 회원과 가족수는 7만여명에 이른다.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장은 "일본의 경제 제재에 맞서 일본제품 판매 중단과 불매운동에 전통시장도 적극 동참해 나라사랑을 실천하고자 선포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곡성 석곡농협은 일본 여행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쌀을 주는 이벤트를 펼쳐 화제다. 농협 측은 지난 19일 홈페이지에 '일본여행비 100만원 이상 계약자(1인 기준) 중 계약취소한 사람을 19~23일 하루 100명씩 선정, 유기농 브랜드 쌀 백세미 10kg씩을 드리겠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민주당 소속 일부 시·구의원들의 일본연수를 전면 취소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국민적 분노와 함께 일본제품 불매운동

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으로의 연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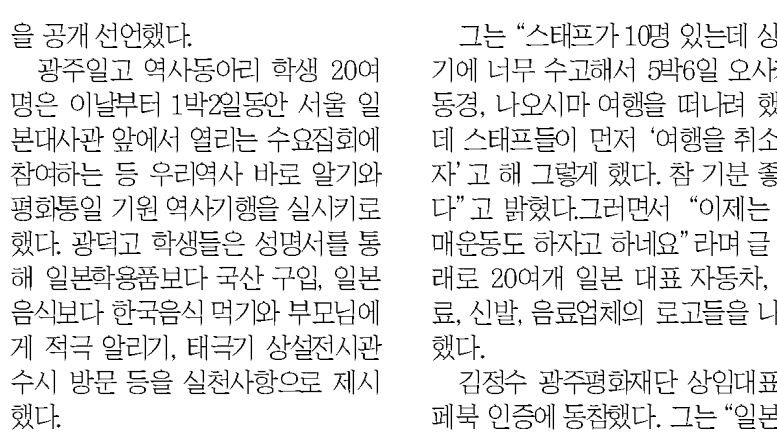
불평은 교육현장으로도 번져 청소년 교류가 줄줄이 중단 또는 취소되고 있다.

광주시 교육청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 나고야소송지원단, 도야마호쿠리쿠엔 재팬'이나 일본에 본사를 둔 기업체들의 제품은 "사지도, 팔지도 말자"는 운동이다.

광주시 교육청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 나고야소송지원단, 도야마호쿠리쿠엔 재팬'이나 일본에 본사를 둔 기업체들의 제품은 "사지도, 팔지도 말자"는 운동이다.

전남에서는 B초교와 D초교, N고 등 초·중·고 통틀어 10개 안팎의 학교가 일본 방문 일정을 취소하거나 보류하고 이 중 상당수 학교는 방문지역을 중국 상하이 등으로 변경한 상태다. 한일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장기화될 조짐도 보여 대일(對日) 교류행사를 백지화하거나 행사지를 변경하는 학교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광주 광덕고와 광주일고는 학생회 논의를 거쳐 일본제품 불매 운동



을 공개 선언했다. 광주일고 역사동아리 학생 20여명은 이날부터 1박2일동안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에 참여하는 등 우리역사 바로 알기와 평화통일 기원 역사기행을 실시키로 했다. 광덕고 학생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학용품보다 국산 구입, 일본 음식보다 한국음식 먹기와 부모님에게 적극 알리기, 태극기 상설전시관 수시 방문 등을 실천사항으로 제시했다.

SNS 인증운동도 확산되고 있다. '제2의 백남준'으로 불리는 세계적 미디어 아티스트인 이이남 작가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일본 미술관 여행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스태프가 10명 있는데 상반기에 너무 수고해서 5박6일 오사카, 동경, 나오시마 여행을 떠나려 했는데 스태프들이 먼저 '여행을 취소하자'고 해 그렇게 했다. 참 기분 좋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불매운동도 하자고 하네요"라며 글 아래로 20여개 일본 대표 자동차, 의류, 신발, 음료업체의 로고들을 나열했다.

김정수 광주평화재단 상임대표도 폐북 인증에 동참했다. 그는 "일본여행 취소 위약금 70만원은 적잖은 돈이지만, 식구들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가족여행을 준비한 딸에게 많이 미안하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장맛비, 오는 28일 끝난다 다음주부터 '더위와 전쟁'

오늘 밤 서해안부터 영향권...이후 장마전선 북상

중부·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는 24일 오전,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장마전선이 차차 동진하고 있다. 장마전선은 이번 주 내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중부까지 확장된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된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남하한 건조한 공기가 만나면서 산동반도 부근에서 장마전선이 활성화된 상황이다.

이 장마전선은 우리나라를 향해 느리게 동진하며 발달해 이날 밤 서해안부터 영향을 미치다가 차차 그 밖의 지방에도 비를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번 장맛비가 28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밤 서울·경기도·충청도 등 중부 서쪽지방을 시작으로 25일 낮에는 제주도·남해안·경상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다.

이후 장마전선에 동반한 비구름대가 남쪽으로 오르내리며 25일 저녁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6일에는 다시 경상북도와 전라북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될 전망이다.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장마전선을 밀어올려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함에 따라 27일 밤 경상·전라비의 비는 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기도·강원영서의 비는 28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이 기간 동안 고도 5km 이상 대기 상층의 건조한 공기와 고도 1.5km 이하 대기 하층의 습한 공기가 충돌해 대기 불안정성이 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

특히 서울·경기도·충청도·강원영서를 중심으로 새벽과 오전 사이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7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경기

조인호 기자

'노른자위' 호남대 쌍촌캠퍼스 학교시설 결정 폐지

광주시-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사전협상 마무리

'노른자위 땅'으로 주목받아 온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의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이 폐지된다. 공공기여와 함께 해당 부지에는 97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24일 호남대측과 2년여에

걸쳐 진행해 왔던 쌍촌캠퍼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성인학원 측이 242억원을 공공기여로 제공하고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는 제2

종 일반주거지역 6만4116㎡ 규모로, 지난 2015년 3월 광산캠퍼스로 통합 이전한 후 유휴부지로 남아 있다. 광주시와 호남대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학교법인인 성인학원 측이 광주시에 242억원을 공공기여로 제공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공공기여의 구체적인 분야로는 장기미집행시설인 운전관공원과 화정

근린공원 조성에 206억원을 투입하고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경로당 등 기반시설 확충에 37억원을 기여한다. 이를 통해 근린공원 2곳에 대해서는 공공기여가 이뤄져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실효를 막을 수 있게 됐다. 학교법인 성인학원은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에 대한 사전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97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제반절차를 추진할 전망이다.

서은홍 기자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



지상 최대의 물싸움



장흥 워터樂 파티

맑은물 푸른숲 정남강 장흥

제12회 정남강인강홍 물축제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4년 연속 우수축제

2019. 7. 26(금) ~ 8. 1(목) 7일간
담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 주요행사 일정 -

- 개막식 : 7월 26일 (금) 오후 8시 (축하공연_ 비와이, 노라조, 제시, 박애리 등)
- 살수(薩水)대첩 거리 퍼레이드 : 7월 27일 (토) 오후 1시
- 지상 최대의 물싸움 : 7월 26일 (금) ~ 8월 1일 (목) 오후 2시
- 황금물고기를 잡아라 : 7월 27일 (토) ~ 8월 1일 (목) 오후 3시
- 장흥 워터樂 파티
 - 7월 26일 / DJ에나, 허조고
 - 7월 27일 / 불릿밴드, 존자, DJ차니
 - 7월 28일 / 박수홍, 손현수, DJ주주, 미스터펄, DJ레드핑크
- 공개방송
 - 목포 MBC : 7월 29일 (월) 송가인, 진시몬, 광민주, 이혜리, 현진우, 소명, 정정아, 광민, 묵비, 김경아, 이청아, 김대나, 임영웅
 - C J 헬로 : 7월 31일 (수) 박규운, 레이디 T, 박서진, 소현아, 태연아, 한민지, 이세진, 임경진, 신아라